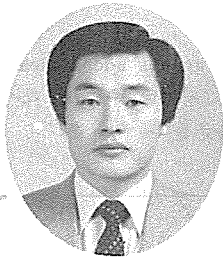


제24호 1984年 3月 1日

# 물리 치료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Korean Physical Therapist Association

## 도도한 歷史의 흐름속에서 이땅위에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할 것인가.



財務理事 閔 庚 玉

1965年 10月 1日 한일병원 소회의실에서 創立會를 갖고 그 고고한 出帆의 뜻을 올린지 만 19年, 지난해에는 第19次 大韓物理治療士協會 定期總會와 學術大會가 11月 5日 부산 市民會館에서 600여명의 會員이 參席한 가운데 盛大하게 거행되었었습니다. 協會創立 이래 最大規模의 行事였던 이 定期總會 및 學術大會를 成工의으로 마치고 協會長님을 비롯한 저희 任員들은 우리 物理治療士의 底力에 새삼 놀라며 한편으로는 矜持와 自負를 더욱 굳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다고는 아니니 지난 19年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時間을 協會를 위해 수고한 많은 분들의 보이지않는 숨결의 所産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귀중한 所産을 더욱 잘 이어나가도록 하여야겠습니다. 本人이 協會財務理事로 選任되어 지난 1년간 협회살림을 하면서 느낀 最初의 率直한 心情은 너무 무

관심하였구나하는 스스로의 自責이었습니다. 회원여러분, 이제 우리는 協會에 對하여 좀더 仔細히 알아야겠습니다. 協會가 왜 存在해야하는가, 그리고 나에게는 어떠한 有益을 가져다주는가 하는것을. 때로는 協會에서 하는일이 會員님의 皮膚에 직접 와 닿지않을 때도 있을 것이며 또 不滿스러운 일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럴때마다 우리는 한가지 分명한 事實을 記憶해야 합니다. 그것은 協會가 누구의 것이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自身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일들이 있을때 어떻게해야 하겠습니까? 對答은 自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곧 會員 여러분이 主人意識을 갖고 좋은 일, 잘하는 일에는 激勵을, 바람직하지 못한 일에는 提言과 忠告를 아끼지않으셔야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 協會는 올해로 創立20주년을 맞게되며 成年의 첫걸음을 내딛는 重要한 時期에 와 있습니다. 이 成年의 첫걸음을 내딛는 우리 協會는 올해 큰 行事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시아 物理治療士聯盟總會와 第6次 學術大會가 그것입니다. 協會에서는 이 總會를 成工의으로 치루기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協會任員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일이며 큰 慶事입니다. 우리는 눈과 마음이 世界를 향하여 열리기 시작하는 그 첫 行事인 아시아物理治療士聯盟總會를 成工의으로 치루기 위하여 本人은 協會 財務理事로서 몇가지 간곡한 付託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會費納付에 대한 것입니다. 어느 政府나 團體를 막론하고 事業을 行하기 위해서는 資金이 必要합니다. 회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協會는 아직 特別한 受益事業을 펼칠수 있는 段階에 와있지 않기 때문에 會員여러분의 會費로 運營되고 있습니다. 大部分의 會員께서는 協會費를 거의 納付해 주셨지만 一部 未納會員님들 때문에 1년 예산을 執行하는데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늦어도 4월말까지는 協會費를 꼭 納付해주셔서 協會事業에 支障을 招來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當付합니다. 둘째는 會館建立基金에 對한 것입니다. 會員님들의 積極의인 協조로 저희 協會에서는 상당히 巨金(?)의 金額이 모어져 協會事務室 賃借를 신중히 論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基金을 募金하고 있아오니 基金을 내주실 會員들께서는 支部를 通하여 中央會에 納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는 아시아 物理治療士總會에 많은 참여있으시기를 希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經費의 負擔이 따르겠지만 오늘의 世界가 한 울타리안에 있으며 東洋도 東洋人것만은 아니고 西洋도 西洋人것만은 아닌 世界에서 살고있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見聞을 넓힐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思料되기 때문입니다.

會員님, 도도한 歷史의 흐름속에서 이 땅위에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할것인가라고하는 巨大하고 遠大한 꿈을 갖지는 못한다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우리의 世代에서 後輩物理治療士들을 위하여 무엇을 이루어놓아야 할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의 이 여러가지 어려움을 後輩物理治療士들에게 계속 자랑인듯 이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모두 協力 단결하여 우리의 協會를 더욱 育成 발전시킴으로써 協會로 인하여 보다 많은 일을 하게하여 보다넓은 環境의 展望을 이어주시겠습니까. 物理治療界의 展望에 대하여 생각하기에는 本人이 明暗의 두 要素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기때문에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것은 더욱 밝게 빛날 수도 있고 더욱 어둠을 향하여 달음질칠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밝고 빛나는 미래를 後輩物理治療士들에게 이어주기위하여 노력해야할줄로 압니다. 그러기위해 회원여러분, 올해는 우리모두 協會의 主人意識을 갖고 會員으로서의 責任과 義務를 다합니다. 다시 한번 會費의 納付와 아시아物理治療士聯盟總會 및 學術大會에 많은 참여를 付託드리며 會員님의 職場과 家庭에 행운이 같이하시길 希합니다. (本協會財務理事 東南保健專門大學物理治療長)